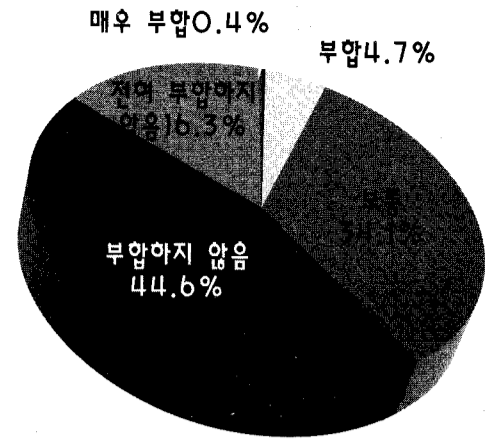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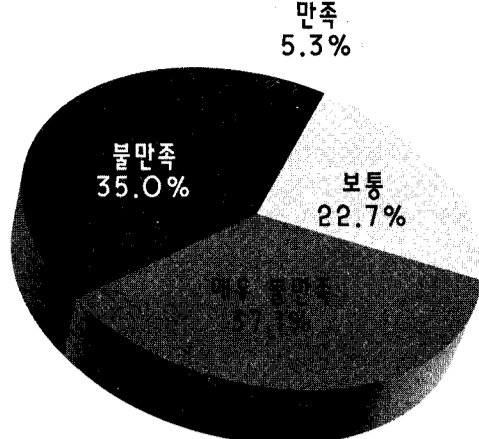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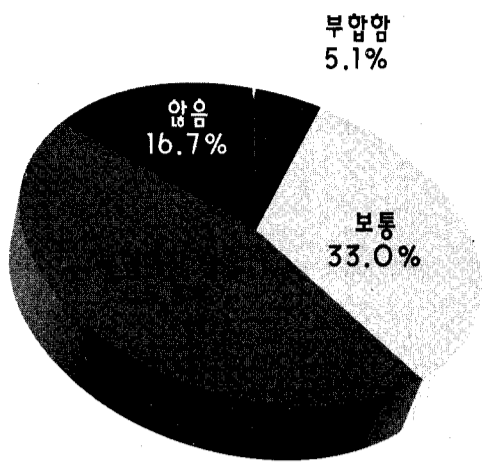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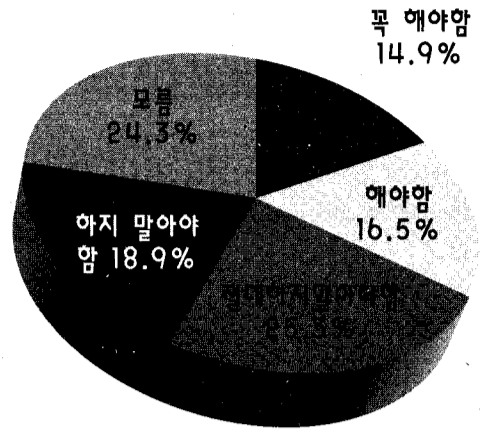
○ 학생동계 ○



▼ 우리학교 교육 목표와 연 교과과정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부제 개편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학교 정책만족도 '낮다'

44.2% 학생 학부제 개편 반대 높아 직원·교수 의견과 차이

(1면 기획기사에서 계속)

식당, 우체국, 은행, 보건소, 의료원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은 수원캠퍼스의 식당과 서울캠퍼스의 의료원이다.

서울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은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캠퍼스 학생 중 33.3%가 의료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이용 경험은 21.8%로 의료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보건소 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는데, 보건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한 학생이 1,2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97학년도 2배 정도 되는 수치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기타 학생들의 모임을 통해 홍보한 결

과" 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학내에 비치되어 있는 복지매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매장은 이용실(70.82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매장은 컴퓨터 매장(63.8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캠퍼스에서는 복사실(72.14점)과 서점(55.73점)이 각각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했다.

학내 복지매장은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을 학생들에게 마련해 놓고 있는데 서울캠퍼스의 서점 '알천지'는 교재, 잡지를 제외한 품목의 구입 금액을 개인별로 기록해 두었다가 적립된 금액의 10% 가격에 해당하는 책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매장들도 물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매장에 비해 학생들의 이용정도가 높은 매장은 가격 면에서 몇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매점 식품의 가격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음료류를 제외하고는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을 뿐더러 시중 슈퍼마켓에서 100원당 10원씩 돌려주고 있는 거스름돈 반환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일부 품목은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장양식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점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문을 통해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단대 교무실이나 학과 사무실에 비해 중앙 행정 기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서울·수원 모두 학과 사무실, 단대 교무실, 행정기관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와 관련된 각종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수원캠퍼스의 공중전화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점수가 40점도 채 되지 않는 36.65점을 기록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종 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서관이 서울은 56.09점, 수원 62.17점을 기록해 서울캠퍼스에 비해 수원 캠퍼스의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에 만족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시설 가운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서울캠퍼스의 정기간행물실(58.92점)과 수원캠퍼스의 일반열람실(64.54점)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서울캠퍼스의 특수자료 열람실(53.02점)과 수원캠퍼스의 24시간 열람실(57.74점)인 것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교수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비디

오(64.29점)를, 수원캠퍼스는 자료열람실(62.50점)을 도서관 시설중 가장 만족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수강신청, 강의 평가, 시험성적 평가, 전공교육, 교양교육, 강의실 환경, 연구실 환경, 장학제도 등 우리학교의 교육 환경 관련 제도에 대해 학생들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장학제도(73.09점)에, 수원캠퍼스 학생들은 교수지도(52.10점)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서울캠퍼스는 전공교육(64.28점)에, 수원캠퍼스는 수강신청제도(42.20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학교 정책과 관련,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이 창의적이며 '문화세계의 창조'에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에 학생들 중 60.9%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학교 교과과정이 교육목표에 부합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62.0%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을 볼 때, 구성원들이 느끼는 창의적이며 현재 교육 방식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또한 요즘 학내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부제와 관련, 현행 학부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5.3%의 학생들만이 만족의 뜻을 밝혔고, 72.1%의 학생들은 불만을 표했다.

그리고 '학부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이 31.4%,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한 학생이 45.2%를 기록해 학부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97년 교육개혁평가와 대학종합평가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한 사실을 아는지라는 질문에는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아니'고 답해 우리학교의 대외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수 학생이 알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학생들에게 우리학교 교육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전공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학생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 취업교육, 일반교양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교직원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42.0%의 교직원이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이 창의적이며 '문화세계의 창조'에 부합한다고 답해 학생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부제에 대한 의견도 학생들과의 차이를 보였는데, 현행 학부제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은 26.7%에 불과하며, 학부제 개편을 해야한다고 답한 교직원도 66.1%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또한 교직원과 관련, 교직원 연봉제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39.5%가 '해야 한다', 23.4%가 '모른다', 37.1%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해 의견 분포도가 매우 고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3.7%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던 사실은 학내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 가운데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대해 갖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학부제 시행을 비롯, 학교 정책과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으로 학교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남이 기자>

이번 설문은...

● 조사기간 : 1998년 5월 13일~ 14일

● 조사방법 : 설문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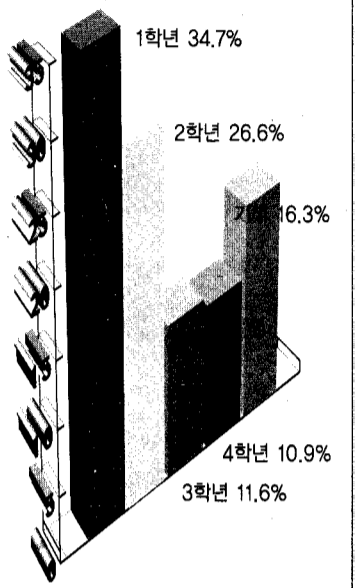
● 모집단

1. 학생 : 2만214명 (서울 : 1만135명, 수원 : 1만079명)
2. 교직원 : 508명 (서울 : 284명, 수원 : 224명)
3. 교수 : 697명 (서울 : 456명, 수원 : 236명)

● 표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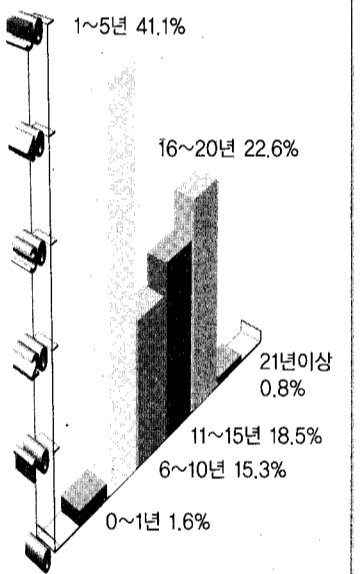
1. 학생 : 534명 (서울 : 243명, 수원 : 291명) : 모집단의 2.64% 허용오차 ±4.18%

학년별 분포도



2. 교직원 : 124명 : 모집단의 24.4%

재직년한



3. 교수 : 61명 (서울 : 21명, 수원 : 40명) : 모집단의 8.98%

正道경영·초우량 LG

사랑과 사명의 동반자 LG 텔레콤

Big Idea란...

50%의 光나는 생각과
50%의 그 제품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제 2회
**LG 019 PCS TV광고
아이디어 공모전**

참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큰 상금과 매력적인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응모과제 및 응모요령

- LG 019 PCS TV-CM 아이디어
 - ① 15초 기준 ② 콘티(카피포함) 또는 스토리를 B4사이즈 제출
- 응모부품
1. 光 PCS 부문 - 기지국 하나에 광고나 12개까지! 최대 12배나 넓어진 019 光PCS의 통화품질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2. 사랑의 019 부문 - 사랑과 사명의 동반자로서 019 PCS의 따뜻한 마음을 감동적으로 그릴 수 있는 내용

시상내역

- 으뜸상 - 부문통합 1명/상금 1,000만원(세금포함)
 - 비금상 - 각 부문 1명(총2명)/상금 각 500만원(세금포함)
 - 두루상 - 부문통합 19명/LGP-3000F 증정 및 무료가입
- 접수처: ①135-605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528호 공모담당자앞
응모마감: 98년 6월 22일(월) -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수상작 발표: 98년 7월 3일(금)자 일간스포츠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g019.co.kr>)

문의 및 안내: LG텔레콤 홍보실 광고 담당 (02)3466-3323~4

- ▶ 제출된 모든 작품은 반환이 불가하며, 입선 작품의 아이디어 등 저작권은 LG텔레콤에 귀속됩니다.
- ▶ 제출 작품 뒷면에 응모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현재 출원 중인 모델 사용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 주십시오.
- ▶ 光PCS 통화품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신문광고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전국단일번호 - 光PCS
LG 019 PCS
인터넷 <http://www.lg019.co.kr>